



브라운관 전자총부품 스템핀 개발 성휘산업(주)

TV나 컴퓨터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전자총의 부품인 Stem pin을 자체 개발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으로 대체하는데 성공한 성휘산업(주).

하루 4천만개의 스템핀을 생산해 올해 매출 50억원을 목표로 뛰고 있는 성휘산업은 국내 브라운관 제작 3사인 삼성전관, LG전자, 오리온전기에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 히다치와 소니 등에도 판로를 개척해 역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고도정밀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휘산업의 과제라고 말하는 안성준사장.



성휘산업주식회사(대표 安晟濬)는 TV나 컴퓨터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전자총(electron gun)의 부품인 stem pin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전자총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데 성공한 기업이다.

전자총부품은 상공부에서 분류하는 산업중에서도 고도산업에 들어갈 만큼 핵심적인 부품으로 국산화 불가능품목으로 지정돼 이미 관세가 인하되어 수입에도 별 규제가 없었던 품목이다.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산업에 성휘산업이란 중소기업이 과감히 뛰어들었다. 성휘산업은 원래 안사장의 장인이 경영하고 있던 대한도입선 제작소(회장 李煥燮)라는 회사의 일개 사업부로부터 출발한 기업이다.

국산화 불가능품목에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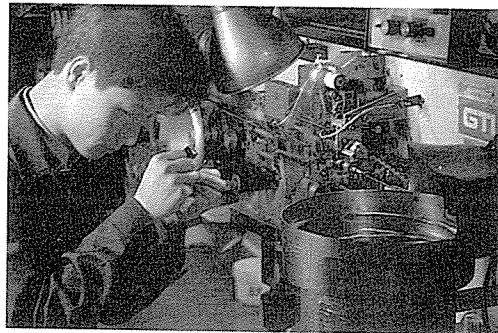
건물의 한 귀퉁이에서 4대의 기계로 시작은 했지만 장인에게 양보한 1개층을 제외한 전층을 성휘산업이 사용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할 만큼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벽산그룹 신규사업팀에서 계열사의 경영실적 관련업무와 4년간 개발조사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던 안사장은 장인인 이회장이 3년 전부터 일본과 추진하고 있던 브라운관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와 전자총부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안사장은 기술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하에 기술의 노하우를 찾던중 일단 용접기술로 승부를 걸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일본의 한 업체만이 독식하다시피 하던 전자총부품 기술개발에 밤낮으로 정열을 쏟은 결과 용접기술에 노하우를 갖게 된 성휘산업. 성휘산업은 용접자와 기계 및 전자 전공자가 많다는 이점을 살려 전자총부품을 자체기술로 100%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성휘산업은 여기서 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아예 설비자체를 국산화하기로 작정하고 기계제작에 착수, 자사제품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 공장 전경

▶ 작업자가 제품(STEM LEAD)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 수시검사를 하고 있는 장면.



일본 히다치 등에 역수출계획

기계자체가 고가이고 전자총부품을 만드는데에는 기계자체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액의 10%를 기술개발비로 투자하여 자체기계를 생산해냈다는 안사장은 창업 3년만에 40%의 기계를 증설했는데 이것이 모두 성취산업의 자체 생산제품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기술력 만큼은 어디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성취산업은 국내 브라운관 제작 3사인 삼성전관, LG전자, 오리온전기에 전량 납품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히다치와 소니, 마쯔시다, 중화연관 등 해외에도 판로를 개척해 역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중 일본의 히다치사는 진공관 내부 부품중 자사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 성취산업의 전자총부품을 쓰는 것이 처음 있는 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LG전자와 삼성전관에 들어가는 제품은 무검사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무검사란 제품의 불량률이 2년정도 제로일때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보통 텔레비전 현대에 들어가는 전자총에는 10개의 스템핀이 들어가는데 만약 이들 부품중 한개라도 불량품일

경우 전모니터세트를 못쓸 정도로 핵심적인 부품이다.

따라서 품질검사가 까다롭기로 소문이 난 제품에 국내 우수 전자업체로부터 무검사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성취산업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고 강조한다. 또한 성취산업은 작년부터는 기계를 아예 자체기술로 만들고 있고, 직원교육용 기계를 별도로 제작하여 직원들이 직접 기계를 작동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전자분야는 특히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기계자체에 노하우가 있으므로 기술이전은 물론 기술교류도 무척 폐쇄적으로 성취산업의 설비의 국산화는 타중소업체에서도 주목할만한 일이라 한다. 그러나 설비의 국산화는 안사장의 굳건한 의지도 의지였지만 현재 공장장으로 있는 라운동차장의 끈질긴 집념이 아니고선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안사장은 회고한다.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뽑혀

성취산업은 또한 국산화 불가능품을 국산화했을뿐 아니라 이를 만들 수 있는 설비자체를 개발했다는 공로가 인정돼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비롯, 상공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할

‘유망선진기술기업’ 2백5개사중의 한 업체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성취산업이 처음부터 유망하고 넉넉한 기업으로 시작했던건 아니다.

초창기에는 종업원 10여명에 1년 매출액 10억원으로 만족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자총부품이 국내 전자3사의 수출증대와 해외현지공장 증설로 덩달아 성취산업의 물량도 늘어나고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주문이 계속해서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브라운관이나 모니터의 숫자가 늘어나는 행운도 따라주었다. 그러나 안사장의 철저한 경영방침이 아니었다면 이런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주위의 한결같은 평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물량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증설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적 인 브라운관 전문 제조업체인 푸카야와 스리타니와 같은 쟁쟁한 업체와 경쟁 또한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은 업체 자체의 재정비와 불륨을 키워야 할 때라고 안사장은 전한다. 그리고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는 전자부품이 정밀기계의 싸움인 만큼 기계의 개념에 전기와 전자의 부분이 가미된 고도로 정밀화된 정밀기계를 만들어 내는게 이제 남아있는 성취산업의 숙제라고 안사장은 말한다.

각 부서장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높여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취산업은 하루에 4천만개의 스템핀을 제조하고 있으며 올해는 매출액 5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